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 탈출기 3,5

9월부터 고통을 주제로 심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 나눔 할 때 대부분이 자기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현실 그대로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줬던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타깝게도 끊어 버리지 못한 고통의 사슬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고통에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뿌리 깊은 상처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 자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타인을 아프게 만들어 가는 나(자아)에 대해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유: 온전한 회복은 성장과 성숙에 헌신하는 일

그 고통의 “치유의 결정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의 헌신은 <자기 인식과 훈련>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의 접촉>을 통해 얻게 됩니다. 누군가 대신 할 수 없는 일, 바로 고통의 치유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교정사목 활동을 하며 상처받은 대상자(수용자 형제자매들과 피해자 가족, 수용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대상자들과 나눔을 통해서 내면 세상을 알게 되고, 대상자들은 고통의 뿌리(내면의 상처)에 거울처럼 마주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아픔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동반자로서 조금 더 공감하고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상자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의 뿌리가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겪은 상처를 수학 문제처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회복과 정을 이겨낼 용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태도를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요한 19,25).” 어찌면 우리가 성모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어 주는 것과 서 있는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드리는 것과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형폐지 국제 조약 비준을 위한 포럼 90' 시민단체 방문



8월 18일(일) 일본 '사형폐지 국제 조약 비준을 위한 포럼 90' 시민단체가 교정사목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포럼 90'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야쓰다 요시히로(安田好弘) 변호사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교정사목에 대한 소개와 해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상태에 있으며, 현재 사형집행 대기 중인 사람은 모두 61명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등 106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연수



8월 21일(수)~23일(금) 강원도 양양에서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교정사목을 위해 일하시는 전국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용자와 출소자들의 도움을 모색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8월 29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미사에서 이상원 부위원장 신부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그 누구보다 미움과 증오를 떨어내려 인간임을 쓰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계신다. 때때로 밀려오는 미움과 증오가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18차 이사회



8월 30일(금) 경기도 광탄성당에서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18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추경예산과 심의 안건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피정 및 월레미사



9월 2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피정 및 월레미사가 있었습니다.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소년원 담당 살레시오회)는 돈보스코 성인에 대한 일화 중, 돈보스코 성인이 소년원을 담당하기 전 영적인 지도자였던 요셉 카파소에게 조언을 받은 사목적인 접근 자세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채소자들을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례하게 굴더라도 화내지 말고 나쁜 행동을 교도관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들이 왜 왔는지 묻지 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더불어, 범죄가 난무한 요즘 세상에 대해 어떤 이가 “악인들은 잘 먹고 잘사는데, 왜 선한 이들이 박해받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며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후원하시고 봉사하시며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이 그런 사람입니다”라며 참석한 분들을 독려했습니다.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강인석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앙 안 우리의 삶

이향순 세레나_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신앙은 제 안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주인의 자리였는지, 반가운 손님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그도 부족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리였는지...

처음 신앙은 어둡고 체온보다 낮은 미지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아픔을 통해 차가운 거울을 지난 해빙으로 초라한 제 마음속에 신앙이 녹아내렸습니다.

평온한 공기의 감사함을 전혀 모르듯, 신앙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오만의 성곽을 튼튼히 쌓아 갈 즈음, 제 가족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나만의 잘남'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고상 밑에 버려진 듯한 저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통곡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당신께 이리도 빌고 간구했거늘, 원망의 독기를 품고 손에 쥔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당신을 찾지도, 반기지도, 맞이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것을. 당신은 저를 내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고, 늘 은총의 선물을 주시려 하시었음을 알았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고 신앙은 제게 족쇄의 굴레가 아닌 은총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이 제 마음속에 공존함으로 메말랐던 제 삶은 촉촉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은 저에게 새로운 신앙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비로소 제 가슴에 '신'이 자리한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 저를 위해 희생과 사랑의 바구니를 계속 엮어가시는 예수님, 퍼주고 퍼주어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바다 같은 어머니 성모님.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초대하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하시며, 그 든든한 신앙으로 나만이 아닌 타인을 향해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눈이,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귀가 되게 하시려고, 화요일이면 구치소로 달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사랑의 탑을 쌓게 해 주소서. 아멘.

기쁨과희망은행 2019년 하반기(22기) 창업교육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9년 하반기(22기) 창업교육이 시행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사회정착과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1) 창업교육 개요

가) 지원대상 :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창업 예정자

나) 서류접수 : 2019년 10월 14일(월) ~ 11월 1일(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라) 교육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 사람들 2층 강의실

마) 서류심사발표 : 2019년 11월 6일(수), 개별 안내

바) 창업교육

- 기초교육 : 2019년 11월 11일(월) ~ 15일(금)

- 교육시간 : 10:00 ~ 17:30

- 교육수료 : 2019년 11월 15일(금)

사) 현장실사 : 2019년 11월 18일(월) ~ 28일(목)

아) 면접심사 : 2019년 11월 30일(토)

자) 멘토링 교육

-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종별 분류

- 심사 후 멘토선정

차) 최종심사

- 창업 전반에 관하여 전문가 멘토링 교육 후 멘토 추천으로 최종심사

2)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 (기쁨과희망은행 양식)

나) 출소 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추천서(신부님 또는 출소구치소, 교도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

바) 기타필요서류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한 지 3년 이내의 출소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자립을 위한 무담보대출은행으로 창업교육과 대출 및 자본금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교 복음 정신으로 참 인간화와 사회 복음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十 찬미 예수님 ~.

안녕하세요~. 신부님 ♪

저는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마리아입니다.

이번주 미사때. (참고로 저는 늘 성가 할때보다. 강론
말씀 들으면.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요. ㅎㅎ.)

미사때 강론을 받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 걱정밖에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 걱정가드는
다 신부님에게 다 주면 되다고. ! 힘내시라는 말씀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것 잊지말라는 마지막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짧고 굵게 그리고 뜻깊게 강론을 너무
가슴에 타 닿게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곳에 있어서
감성이 날다른지 모르겠지만요. 저의 분장 신부님 강론보다
더 정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갖는것 같으면서도, 위로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많은 수용자들 위해 기도
하시는 봉사자님들도 감사하구요~.

늘 감사와 평화를 빕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저희 집회 늘 많은 행사로
뜻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다음 미사때 뵈요~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봉중고등학교에 기존에 계시던 성모상이 비바람에 노출되고 아주 낡아 더 이상의 보수가 어려워 살레시오 공동체의 결정으로 '도움이신 마리아 성모상'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성모님의 사랑이 동반되어 앞으로의 삶에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11월 광탄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빛소식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 11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 * 장소: 가톨릭회관 후문에서 출발 (광탄 나자렛 묘원)
- * 회비: 10,000원 (점심식사 제공)
- * 준비물: 편한 옷과 신발
- * 접수: 10월 1일(화)~18일(금)
- * 문의전화 02)921-5094
- * 11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8/13~9/10)

8월~9월에는 김정훈 대건안드레아 형제님, 이수연 클라라, 이현정 아녜스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10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월 10일(목) 세계사형폐지의 날 '생명·이야기 콘서트' / 가톨릭회관 앞마당 19시
- 10월 10일(목)~18일(금)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10월 11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 10월 12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0월 20일(일)~22일(화) 대표봉사자 야유회 / 제주도
- 10월 21일(월)~25일(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 10월 26일(토)~27일(일) 대흥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대흥동 성당
- 9월 6일(금)~11월 29일(금) 2019 제21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 교정사목센터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